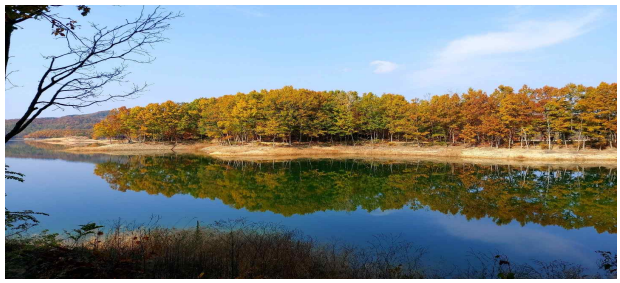
올 가을엔, 횡성으로 떠나보세요

이석효(leseokhyo@naver.com)



살짝 찬 바람이 볼을 스치는 가을은 일년 중 가장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가로수마다 산마다 단풍으로 물든 10월의 마지막 날, 횡성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 마침 여유도 있었고, 숲 속에서 가을을 제대로 만끽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떤 핑계를 대든 여행은 즐거운 법입니다. 떠나자고 마음먹기부터 일정표를 완성하기까지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행 당일, 횡성은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버스를 타니 곧바로 횡성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택시를 타고 찾은 곳은 횡성 호수길. 말 그대로 횡성호 둘레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횡성에 대해 인터넷으로 조사하던 중, 사진을 보자마자 반해버려 고민 없이 첫 번째 목적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초입(初入)에서부터 탄성이 나왔습니다. 맑은 하늘과 단풍 든 언덕, 그것들을 거울처럼 비추는 호수가 어우러져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검은색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산책을 나온 한 여행객의 사진을 찍어 주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둘레길에 접어드니 참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노란 빛, 갈빛으로 물든 활엽수 길을 따라 걷다보니 벤치마다 자작나무 조각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투박하지만 정겨운 모습이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겨 자작나무들이 모여 사는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들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잔잔한 호수와 낙엽수들이, 비슷한 듯 조금씩 변주(變奏)되며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시간쯤 지났을까, 십여 킬로미터를 모두 걷고 나니 슬슬 배가 고파왔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터미널로 돌아가 횡성 전통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얼 먹을까, 같이 간 친구와 의논 끝에 한 설렁탕집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국물이 간절했습니다.

김이 나는 한우 설렁탕이 한 술 들어가니 몸이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맛있다'를 연발하며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식당을 나와 섬강 유원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섬강은 태기산에서 발원(發源)해 횡성을 적시고 원주로 흘러가는데, 이런 섬강을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을 섬강 유원지라고 합니다. 횡성 성당과 한적한 동네를 거쳐 유원지에 도착하고 보니 수많은 캠핑카와 텐트가 강변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곳이 캠핑 명소로 통한다고 합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강과 억새, 맞은편의 물든 언덕이 어우러진 경치가 볼만했지만, 이제 막 횡성호를 보고 온 터라 기대했던 만큼의 인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옆으로 차도가 나 있어 매연이나 소음이 감상을 해치는 점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섬강 유원지를 끝으로, 짧지만 알찼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만점을 주고 싶은 곳도, 아쉬웠던 곳도 있었지만 결국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몇 년간 기승을 부린 병마病魔도 그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단풍 들 올 가을에는 횡성으로 떠나보세요. 어떤 기분으로, 어떤 기대를 갖고 찾으시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시리라고 약속드립니다.